

연말 '산타 랠리' 를 기대하며...개미들 돌아왔다

광주·전남 11월 주식 거래대금 5조5462억...전월비 37.4% 급증 배터리·소재·수소 금양 최대 매입...38개 상장사 시총 3조 늘어나

올해 주식시장 침체가 지속한 가운데 지난달은 주가가 오르면서 지역민 거래대금이 전달보다 37% 뛰었다.

오는 13~14일(현지시간) 미국 기준금리 인상 폭과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국내 주식시장이 산타랠리(상승장) 장세를 보일지, 베어마켓(하락장)을 나타낼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11월 주식거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주식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은 5조5462

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7.4%(1조5088억원) 급증했다.

지난 10월 지역 주식거래대금은 4조374억원으로, 연중 가장 적었다.

지역 주식거래 대금은 지난 8월 6조3494억원에서 9월 4조8841억원, 10월 4조374억원 등으로 2개월 연속 감소 추세였다.

미국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국내 주가도 내려가며 하락기를 맞았지만, 지난달에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두 달 만에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웃돌았다.

주식시장 회복세에 따라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거래대금은 5조원대를 회복했지만, 이는 1년 전(10조7869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거래대금 증가율(37.4%)은 전국 평균 증가율(23.7%)을 웃돌았다.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거래대금은 전국에서 0.75% 비중을 차지하며 한 달 새 비율이 0.07%포인트 늘었다.

시장별로 보면 지역민들의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 10월 2조21000억원에서 지난달 3조29000억원으로, 48.9%(1조8000억원) 증가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1조81000억원에서 2조25000억원으로, 24.3%(44000억원) 늘었다.

지역민들의 투자금이 가장 많이 몰린 코스피 종목은 배터리·소재·수소 사업에 뛰어든 금양으로 지

난달 1180억원을 투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래나노텍 거래대금이 790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달(9위)보다 8계단이 나 뛰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거의 두 달 만에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웃돌았다"면서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인플레이션(고물가) 정점을 지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중국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지만 지난달 말 외국인이 1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상승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가 반등으로 광주·전남지역 38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한 달 새 3조원 가까이 늘었다.

지난달 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20조4563억원으로, 전달(17조4692억원)보다 17.1%(2조987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장사 16개사 시총은 2조8186억원(18.3%) 늘었고, 코스닥 22개사 시총은 1685억원(8.0%) 증가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종목은 금호건설(49.8%·30억원 ↑), 금호건설(34.4%·768억원), DSR제강(27.2%·177억원) 등이 있었다. 반면 다이나믹디자인 시총은 10.7%(-89억원), 금호타이어는 2.4%(-215억원) 줄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남화토건(48.6%), 우리로(26.4%), 남화산업(23.3%) 등은 늘고 대한그린파워(-7.3%), 상상인인터스트리(-6.5%), 위니아에이드(-5.0%) 등은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기관 '반부패·인권' 행사 다채

한전KDN 캠페인...사학연금 '청렴 낱말 맞추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권영향 평가 '매우 우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기관들이 세계 반부패의 날(12월9일)과 세계 인권의 날(12월10일)을 기념하는 '반부패·인권주간'을 맞아 이번 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우선 한전KDN은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나주 본사에서 출근길 직원들과 '한전KDN 반부패·인권주간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기간 김장현 한전KDN 사장과 정성학 상임감사 등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청렴을 강조하는 홍보물과 떡, 음료를 나눠줬다.

경영진은 '인권경영 실천 서약식'을 열고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이외 '청렴 다짐 나무 만들기' '반부패·인권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직원들은 인권경영 동참 의지를 담은 '청렴 다짐 카드'를 직접 써서 청렴 나무에 붙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도 앞서 임직원, 청렴시민감사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 문화 행사를 진행했다.

청렴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문구를 공모하고, 청

렴을 다짐하는 게시판을 운영했다.

'청렴 낱말 맞추기' '출근길 청렴 캠페인' '사진 촬영 공간 운영' '청렴 조명등 제작' 등 행사도 함께 진행했으며, 신규 직원들은 청렴 교육을 받았다.

오는 23일에는 청렴 문구 공모 수상자를 뽑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을 시상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16일까지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주간 행사를 벌인다.

'청렴키사'로 사행시를 짓고 '인권 영화제' '부패 보물찾기' 등 놀이를 통해 직원들 참여도를 높인 것이 눈에 띈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 윤리경영위원회 외부위원들이 기획·참여하면서 이사회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효과도 노렸다.

또 진흥원 노사는 '국제기준 강화 및 환경 문화'를 추가한 인권경영현장을 함께 선포하기도 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다른 기관들도 연말 인권경영을 주제로 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수행한 '2022년 인권영향평가'에서 기관 운영 분야 96.54% 등 지표 달성률을 나타내며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연구원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를 인권경영 확산기로 정하고 지속 가능 경영의 토대를 다질 방침이다.

한전KPS는 (사)한국감사인협회 주관 '2022 한국 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 부문 기관 대상 '자랑스러운 감사인상'(김완수 부장)을 수상했다. 한전 KPS는 공기업 최초로 감사심리 전담부서인 '감사 조정부'를 신설, 인권감사를 정착하고 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하고 있다.

김완수 한전KPS 감사기획부 부장은 이번 수상에 이어 오는 15일 열리는 (사)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 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 부문 최우수상을 받을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신입사원 입사식
한전KDN 하반기 신입사원 120여 명이 지난 12일 나주 본사에서 열린 '입사식'에 참여해 김장현 사장으로 부터 사령장과 회사 휘장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다. <한전KDN 제공>



전남 사회 안전망 협력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백인도·왼쪽 3번째)는 13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기로 했으며, 영·섬본부는 이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500만원을 전했다.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제공>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 강화

나주 혁신도시 3곳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준정부기관 3곳이 내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이 된다.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처럼 기준을 변경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곳에서 88곳으로 42곳 줄어든다.

부산형민공사 등 공기업 4곳과 사학연금공단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

원,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 36곳이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이 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 비해 정부의 감시·감독 정도가 강한 편이다.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경영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 부처로 바뀐다. 경영평가도 기재부가 아닌 주무 부처에서 받는다. 임원 임명 절차도 공운법이 아닌 개별법·정관에 따라 이뤄진다.

정부는 새로운 시행령에 맞춰 내년 1월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기준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사업은 500억원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